



3면
"연금도시 전북 구상"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6년 3월 23일 월요일 (음 2월 5일) 제393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현대차그룹 투자 전방위적 지원 돌입

도, 전담 조직 본격 가동
총리 주재 범정부 TF 맞춰
종합지원계획 수립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실무자로 조기 전환하기 위해 도 차원의 전담 실무 조직을 출범시키고 전방위적 지원 체계에 돌입했다.
도는 지난 20일 현대차 투자와 관련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 관계기관·중앙부처 협의 등을 전담할 범정부 TF의 '현대자동차 투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7일 체결된 전북 역사상 단일 기업 최대 규모인 9조원 투자 협약(MOU)을 현실로 끌어내기 위한 후속 조치다.

미래첨단산업육성 산하에 설치되는 지원단은 단장(4급)을 중심으로 총괄 기획팀장(5급)과 실무 담당자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단순 회의 지원을 넘어 기업의 요구와 행정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실행형 컨트론탑을 맡는다. 특히 지난 3월 11일 국무총리 주재로 출범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에 기민하게 연동해 대응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키오프 회의에서 "초반 1~2개월 내 종합지원계획을 마무리하고 기업이 곧바로 실무자에 나설 수 있도록 조속도전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도는 오는 5월 발표될 범정부 종합지원계획에 전북의 핵심 과제가 반영되도록 부처 협의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현대차 투자의 걸림돌을



돌아온 BTS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21일 서울 중로구 평화문광장에서 컴백을 기념해 'BTS 컴백 라이브 : 아리랑'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빅히트 뮤직/넷플릭스 제공)

제거하기 위해 관련 애로사항을 일괄 접수·처리하는 단일 접점 체계를 운영, 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부지 조성 및 건축 인허가 시 사전 컨설팅으로 보완 요청을 최소화해 사업 착수 시기도 앞당긴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해 한전 등과 협의하며, 용수·도로·가스 등 기반 유틸리티 구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 차원의 보조금 등 맞춤형 인센티브 제안은 물론, 기회발전특구 연계 세계 혜택과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 등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단 신설은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어 전문성과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단이다. 그간 도는 아차산지탄소 산업과를 중심으로 분야별 현안에 개별 대응해 왔으나, 초대형 프로젝트와 기존 업무와 병행하기에는 전문성과 대응 속도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내부 진단이 나왔다.
특히 기업 협의, 부처 협업 규제 개선 검토가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존 인력만으로는 적기 대응이 어렵고 후속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담

조직 신설로 방향을 전환했다. 도는 지원단 운영을 통해 '전북형 원스톱 투자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향후 대규모 전략 기업 유치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는 전북에 대한 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담 조직 가동을 통해 현대차의 투자 계획이 신속하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군산공항 '하루 3회' 운항 도민 항공교통 편익 증진

오전편 신설 기준 '하루 2회'에서 확대
도, 여행사 대상 승객 유치 지원 병행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부터 군산~제주 노선 항공편을 하루 3회로 확대 운항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증편은 국토교통부의 2026년 하계 정기항공편 일정 확정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도민의 항공교통 편익을 높이고 군산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군산공항은 그동안 하루 2회 운항 체계로 운영돼 왔으나, 이용객 증가와 항공 수요 회복에 따라 추가 증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탑승률은 올해 1월 80%에서 2월 88%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증편으로 군산~제주 노선에는 오전 11시 10분, 제주~군산 노선에는 오전 9시 20분 출발편이 각각 신설된다. 이에 따라 시간대 선택 폭이 넓어져 도민의 이동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공항은 운항 안정성 측면에서도 개선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집계된 동계기간 결항률은 0.6%로, 전년 대비 5.8%p 낮아졌다. 이는 제·방빙시설 도입과 제설 대응체계 강화에 따른 결과로, 기상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운항 환경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도는 군산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승객 유치 재정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여행사가 승객을 유치할 경우 1인당 편도 5,000원을 지원되는 방식으로, 항공 수요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만호 기자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계획 실행

도, 산업·경제·에너지·관광 등 분야 망라
생명경제 글로벌 중심 도약 등 3대 목표 설정

전북특별자치도가 향후 10년 도정 발전 방향을 담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한다.
도는 지난 20일 산업·경제·에너지·관광 등 전 분야를 망라하는 중장기 전략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전북특별법 특례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기존 계획과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종합계획은 '사람·자연·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생명경제도시 전북'을 비전으로 △생명경제 글로벌 중심 도약 △첨단산업의 글로벌 성장 △연결도시의 세계적 확장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과 18개 계획 과제, 59개 세부과제도 포함됐다.
도는 향후 10년간 총 109조원 규모의 투자를 투입할 방침이다.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8%, 민간 등 기타 36%로 구성되며, 농생명·바이오·신재생에너지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도내 14개 시군의 산업 기반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 전략도 포함됐다. 전주·익산·인주를 축으로 한 중추도시권, 새만금 중심의 첨단산업 권역, 동부 산림·치유 관광권 등 권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 전략으로 지역 간 연계와 확장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전북특별법에 따른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을 활용해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핵심 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오만호 기자

공소청에 이어 중수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행안부장관 소속, 내란·외환 등 수사 범위로 규정... 민주, 검찰개혁 2단계 조치 마무리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과 함께 대체 조직으로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법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출범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운영 등을 다룬다. 법안은 중수청 수사 범위로 △내란·외환 △부패 △경제 △방위산업 △미약 △사이버범죄 등을 규정한다. 청장 자격은 수사·법률 등 업무 15년 이상 재직으로, 변호사 자격은 요하지 않는다. 중수청에 1~9급의 수사관을 두며 지방중수청도 둘 수 있다.
행안부장관 소속이지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중수청장은 중수청 사무를 총괄하며 중수청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해 수사관이 상관 지휘·감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중수청법이 통과되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에 이어 올 초부터 추진한 검찰개혁 2단계(공소청·중수청법) 조치를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 3단계 조치로 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및 범죄 피해자 보호를 제시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장수 산서면 육용오리 고병원성 AI H5N1 확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수군 산서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최종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초동대응팀이 즉시 투입돼 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역학조사가 진행됐다. 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방역 지역으로 설정하고, 정밀검사와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오만호 기자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무주군의의회

새로운 변화, 함께하는 의정,
내일을 준비하는 무주군의의회가 되겠습니다

무주군의의회
MUJU-GUN COUNCIL